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황우진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5. 3.(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조직 총책 구속기소

- 5년간 조직원 54명, 대포통장 14,400개 제공, 대가 144억원 취득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약 5년간 활동한 A를 오늘(5. 3.)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직접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장집'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유통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은어임

- '장집'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마찬가지로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원이 순차 검거되는 관계로 그 실체나 총책 등의 신원 파악이 어려웠으나, **장기간에 걸쳐 전체 기록을 일일이 모아 분석함으로써 중국에 거점을 둔 조직원 54명 규모의 '장집'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총책을 구속**한 것입니다.

- 검찰은 A가 △ 중국에서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한 후 △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 **대포통장 약 14,40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4억원을 취득**한 범행 과정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 '22. 8. 국내에 들어온 A는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의료자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가 지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등 **인신구속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접 구속**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

사건관계인

- 피고인 : A(남, 46세, 무직,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 출신)

2

공소사실 요지

- ① '14.~'18.경 총책 B와 함께 중국 산둥성 청도시 및 위해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책, 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총 52명을 선발한 후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이른바 '장집'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 활동 [범죄단체조직·활동]
- ② '19. 2.~11.경 전주에서 배팅액 합계 약 31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장소개설]

3

수사 경과

- '21. 8. 경찰이 수사착수하자 A 도주
- '22. 8. 경찰, 피의자 체포 후 건강상 이유로 석방
- '22. 10. 경찰, 불구속 송치
- '22. 11. ~ '23. 11. 검찰, 보완수사요구(A의 구체적 역할, 수익규모 등 파악)
- '23. 11. ~ '24. 4. 검찰, 불구속 송치 후 전면적 보완수사

- 조직원들 수사기록 및 재판 진행사항 등으로 A의 총책 역할 규명
- A 명의의 다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범죄수익규모 파악
- 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및 구치소를 상대로 자문의뢰하여 A 건강상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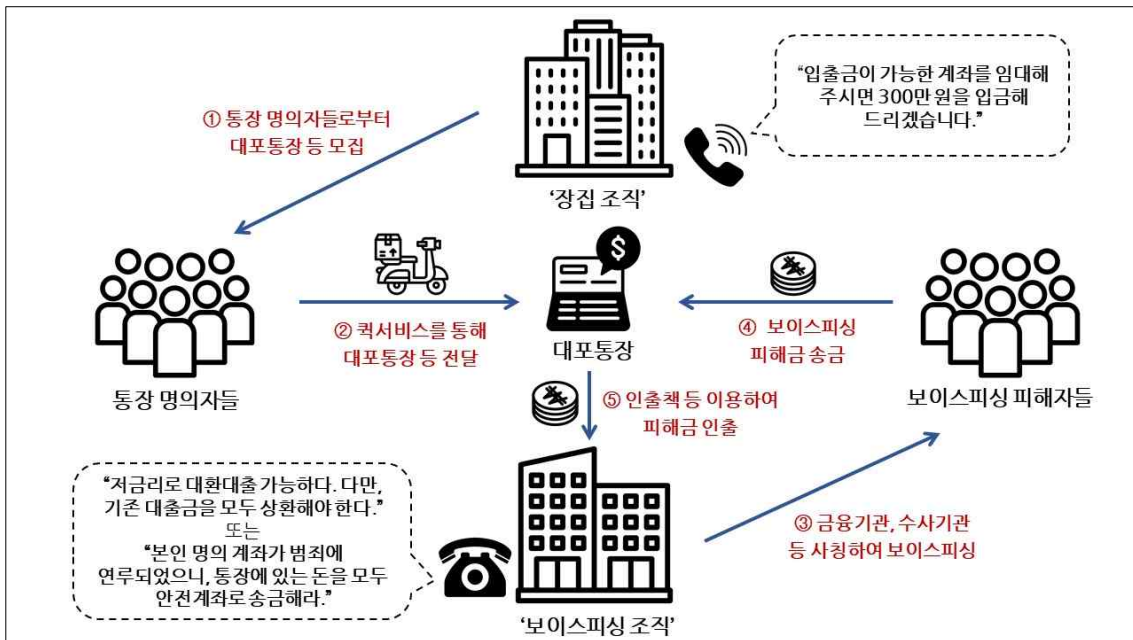
- '24. 4.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 '24. 4. ~ 5. 1. 검찰, 도박장소개설 등 추가 입건
- '24. 5. 2. 검찰, 구속기소

4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조직인 대포통장 모집 '장집' 조직의 실체 규명

-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단기간 사용한 후 폐기되는 대포통장이고,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포통장 제공 역할을 하는 '장집'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조직임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취득할 목적으로,
 - ① '장집' 조직이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대여하고,
 - ②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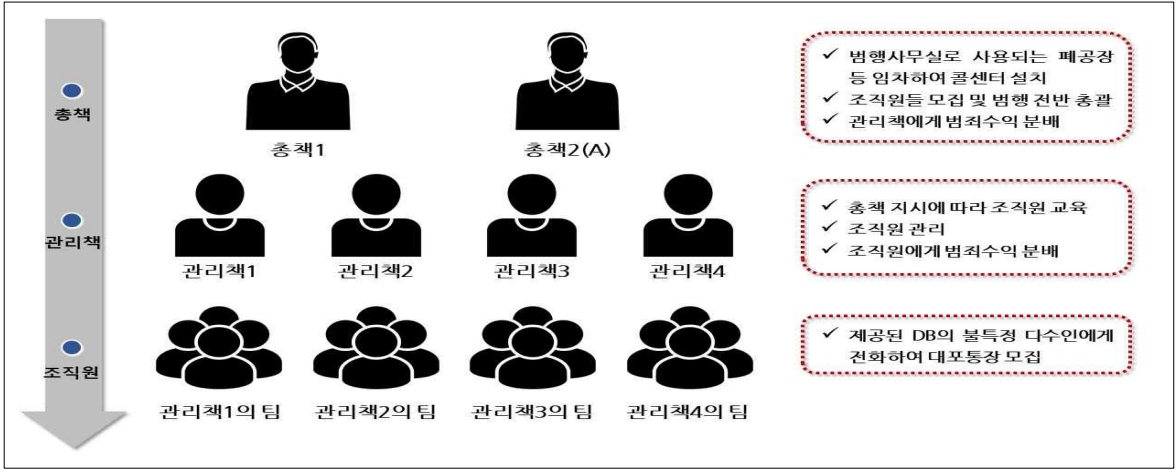


[그림1] 보이스피싱 범죄 모식도

- '장집' 조직은 통장명의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통장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 ※ 해외에 거점을 둔 '장집' 조직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인터넷 전화(070으로 시작)를 사용함

보이스피싱 관련 대규모 범죄조직의 총책을 검찰이 직접 구속한 사례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무실, 전화, 통장 등을 수시로 변경하며 범행하고 있어, 범죄조직이나 조직원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내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더라도 점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의 특성상 총책이나 상급관리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신병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
 - 이 사건은 조직원 총 54명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순차 검거되어 각 조직원들의 진술, 증거 등이 산재되는 바람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총책, 관리책, 직원의 역할과 위계질서를 명확히 파악하게 되어 대규모 대포통장 공급조직의 총책을 구속한 것임
- ※ 조직원 30명은 구속 기소, 16명은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 (10명은 현재 재판 계속 중), 2명은 기소유예, 1명은 군이송 처분, 총책B 및 관리책 3명은 미검거되어 기소중지 상태



[그림2] 본건 ‘장집’ 범죄단체의 조직도

- A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위해시 등에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확보하고 인원을 모은 후 약 5년간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 관리·감독, 범죄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고, 무려 14,400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약 144억원의 통장 판매수익을 얻고, 최소 21억6,000만원을 개인 수익으로 취득하였음
- ‘18. 11. 귀국한 A는 범죄수익을 중국 현지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는바, 은닉된 재산 유무를 추적할 예정임

건강을 빌미로 구속을 면하려던 A의 건강상태 확인하여 직접 구속

- A는 경찰의 추적 끝에 '22.8. 체포된 후 말기신부전증 등 수형이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로 석방, 불구속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장집' 조직 총책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A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였음
- 서울남부지검 의료자문위원과 서울남부구치소 자문을 통해 'A가 현재 구속수사와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A가 지인을 만나는 등 활동하고 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음

귀국 후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도 추가 적발

- 검찰은 범죄수익 추적과정에서 A가 귀국 후 약 10개월간 '파워볼' 게임의 도금을 대신 충전해주거나 대리 배팅하는 방법으로 배팅액 합계 약 31억원대의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A에게 다액의 대리 배팅을 의뢰한 도박 피의자도 적발·입건하였음

※ 파워볼 게임은 5분 단위로 28개 일반볼 중 5개, 10개 파워볼 중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언더·오버를 맞추는 게임

5

향후 계획

- 검찰은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바, 보이스피싱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 공급조직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조직의 규모와 총책의 역할을 밝혀내고, 범망을 빠져나가려는 거짓 변명을 파악하여 총책을 구속하였음
- 앞으로도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그 범죄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